

| | | | |
|-------------|-------------------------------|-------------|---------------------|
| 배포일시 | 2010. 11. 25.(목) 11:00 (총 9매) | 보도시점 | 즉시 |
| 담당부서 | 부산지방기상청 기후과 | 담당자 | 과장 조진태 장기예보관 박인태 |
| | | 전화번호 | 051-718-0423 |

12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부산·울산·경남)

- 겨울의 시작, 한파·대설·강풍 및 풍랑 피해예방 조치 필요 -

□ 12월의 기상특성

- 겨울의 시작으로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점차 날씨가 추워짐. 찬 대륙고기압 영향 후에는 복사냉각으로 인한 기온 하강이 나타남.
- 찬 대륙성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경남서부내륙지방으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며,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로 인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함.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시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임.

□ 12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건강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작물 동해 및 연근해 양식장 피해,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사전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찬 북동풍 영향 때는 동해안지방 중심, 남부지방 저기압 통과 시는 전 지역에서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방지 등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강풍과 풍랑

찬 대륙고기압 확장 전면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강한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간판, 비닐하우스 등)의 사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함. 해상에서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높아짐. 북동풍이 불 경우 앞바다까지도 물결이 높아지니, 해상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첨부 : 12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1-718-0423, <http://www.kma.go.kr>

12월 기상특성과 재해정보(부산·울산·경남)

- 겨울의 시작, 한파·대설·강풍 및 풍랑 피해예방 조치 필요 -

부 산 지 방 기 상 청
2010년 11월 25일 11시 발표

□ 12월의 기상특성

- 겨울의 시작으로 찬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점차 날씨가 추워짐.
찬 대륙고기압 영향 후에는 복사냉각으로 인한 기온 하강이 나타남.
- 찬 대륙성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경남서부내륙지방으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
며, 동해안지방은 북동기류로 인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눈이 내리기도 함.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 시 육상에서는 강풍이 불고,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아짐.
-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날씨를 보임.

□ 12월의 대표적 기상재해(평년)

○ 한파

차고 건조한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건강관리와 화재예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농작물 동해 및 연근해 양식장 피해,
수도관 동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예방 사전 조치를 강구할 필요
가 있음.

○ 대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는 경남서부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찬 북동풍 영향
때는 동해안지방 중심, 남부지방 저기압 통과 시는 전 지역에서 눈이 내려 쌓이
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과 비닐하우스 붕괴 방지 등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
기 바람.

○ 강풍과 풍랑

찬 대륙고기압 확장 전면에서 강한 바람이 불며, 강한 바람에 취약한 시설물
(간판, 비닐하우스 등)의 사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함. 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
심으로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높아짐. 북동풍이 불 경우 앞바다까지도 물결
이 높아지니, 해상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붙임 : 12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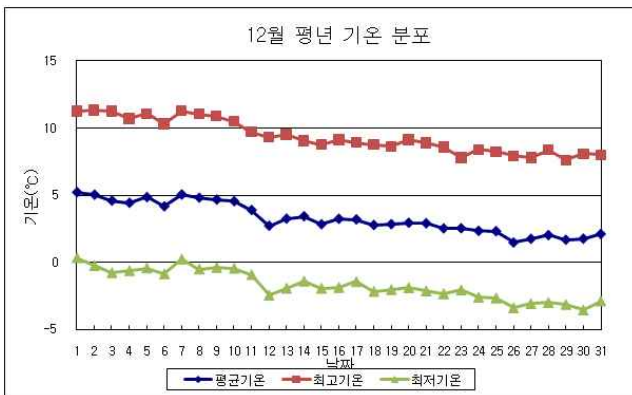
12월의 지역별 기상자료(평년) 및 재해 자료

부산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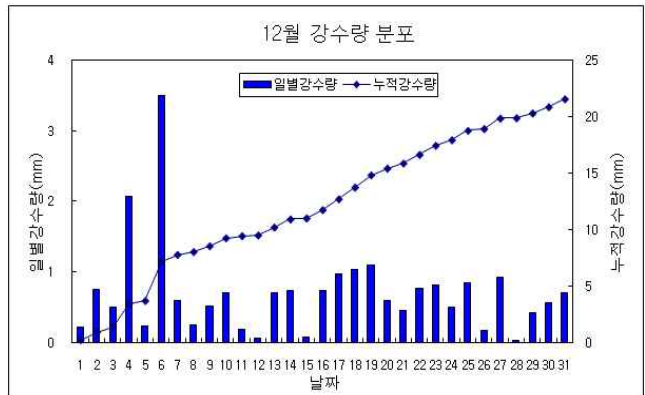
1. 12월 지역별 기온 및 강수량(평년)

단위 : 기온 °C, 강수량 mm

| 지 점 | 울산 | 창원 | 부산 | 통영 | 진주 | 거창 | 합천 | 밀양 | 산청 | 거제 | 남해 |
|-------|------|------|------|------|------|------|------|------|------|------|------|
| 평균기온 | 4.0 | 5.3 | 5.6 | 5.2 | 2.0 | 0.3 | 1.3 | 1.8 | 2.0 | 4.3 | 4.2 |
| 최고기온 | 9.9 | 10.4 | 10.3 | 10.1 | 9.3 | 7.4 | 8.8 | 9.3 | 8.7 | 9.3 | 9.6 |
| 최저기온 | -0.7 | 1.1 | 1.8 | 1.2 | -3.8 | -5.6 | -4.2 | -4.0 | -3.3 | -0.4 | -0.7 |
| 강 수 량 | 23.9 | 21.2 | 24.3 | 22.5 | 20.5 | 19.1 | 16.1 | 17.6 | 19.5 | 26.2 | 25.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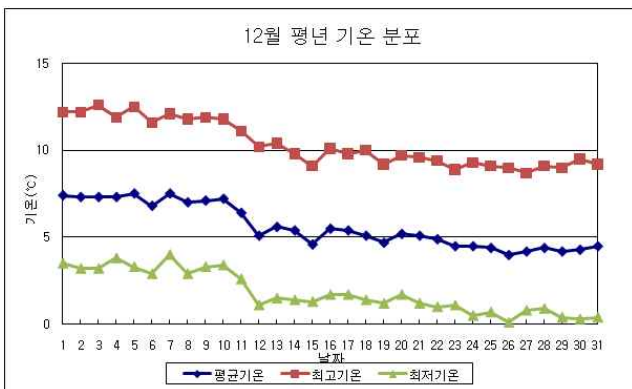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2월 일별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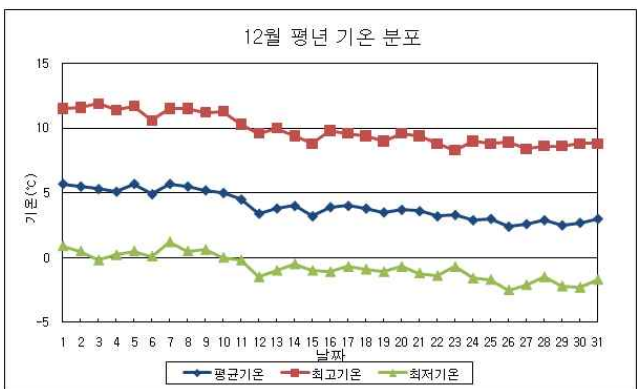
부산·울산·경남 12월 평년 강수량

2.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기온(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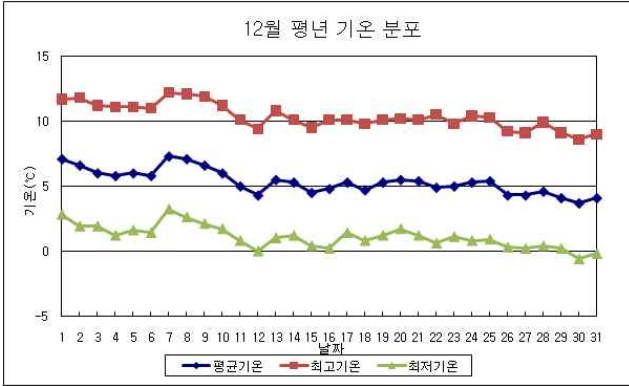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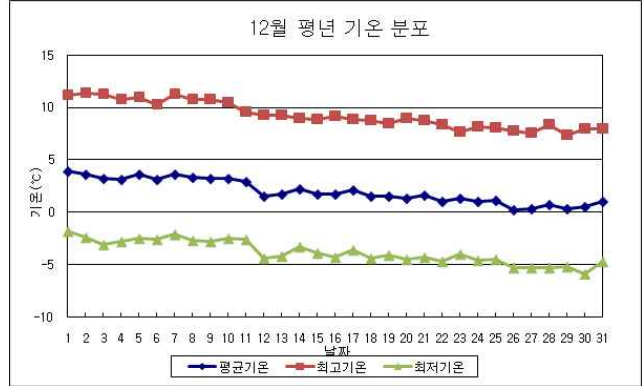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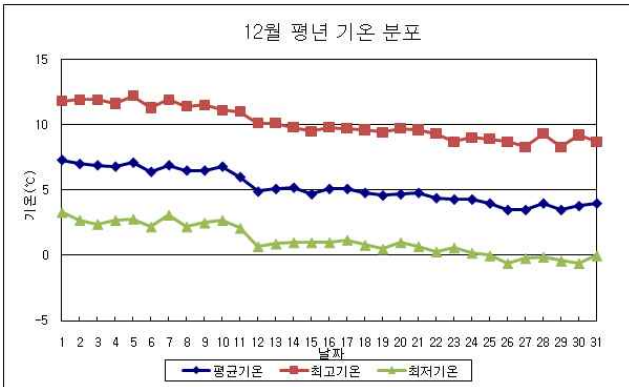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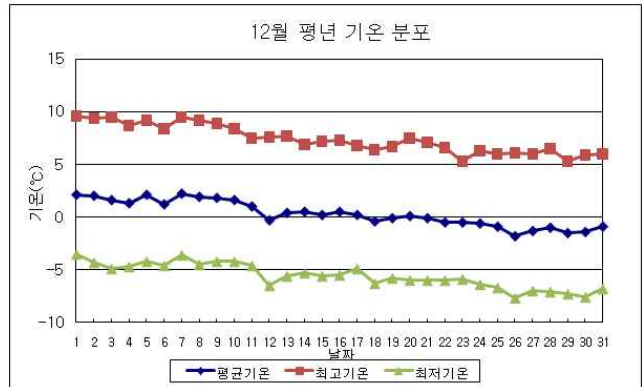
진주



통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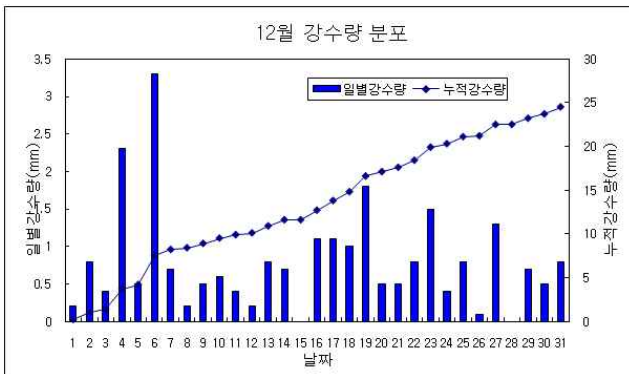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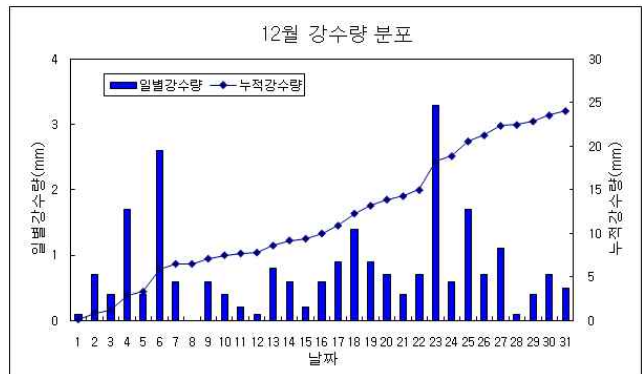


3.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평년 강수량(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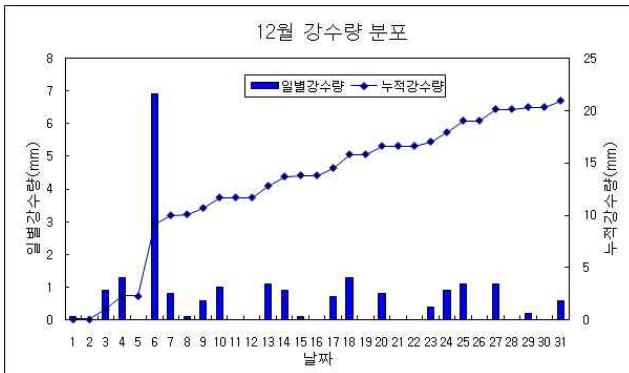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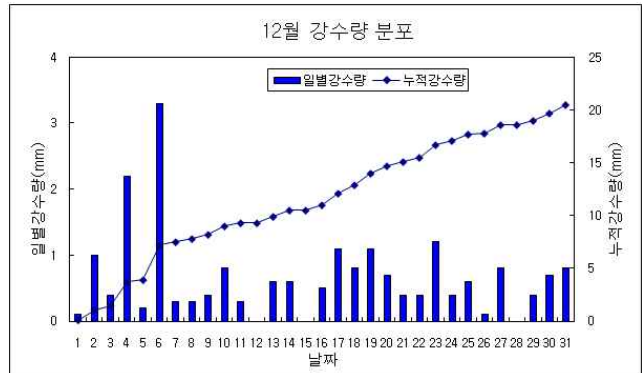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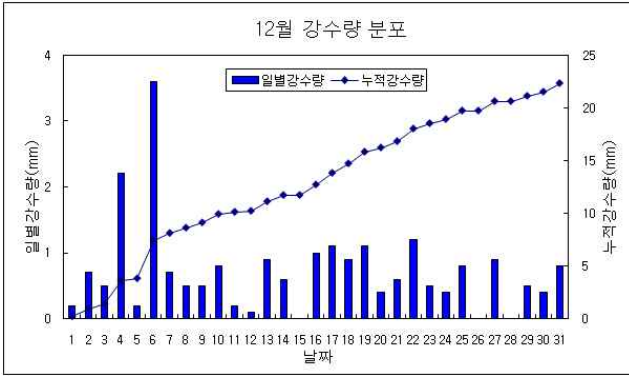
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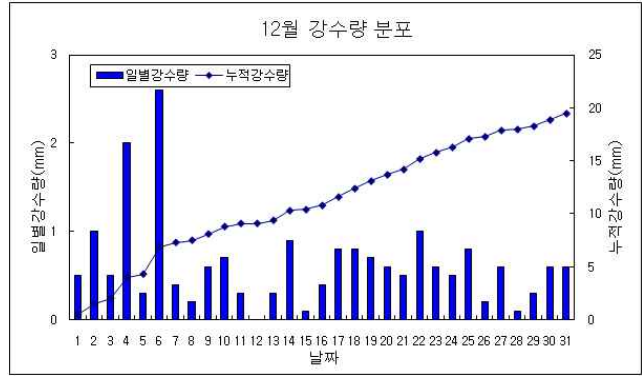
진주



통영



거창



4. 부산·울산·경남 주요도시 순별 평년값(12월)

○ 평균기온

단위 : °C

| 주요도시 |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 창원 | 진주 | 통영 | 거창 |
|--------|------|-----|-----|-----|-----|-----|------|
| 12월 상순 | 4.6 | 7.3 | 5.4 | 6.4 | 3.4 | 6.8 | 1.8 |
| 12월 중순 | 2.9 | 5.3 | 3.8 | 5.0 | 1.8 | 5.0 | 0.2 |
| 12월 하순 | 1.9 | 4.4 | 2.9 | 4.6 | 0.8 | 4.0 | -0.9 |
| 평 균 | 3.1 | 5.7 | 4.0 | 5.3 | 2.0 | 5.6 | 0.4 |

○ 최고기온

단위 : °C

| 주요도시 |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 창원 | 진주 | 통영 | 거창 |
|--------|------|------|------|------|------|------|-----|
| 12월 상순 | 10.9 | 12.1 | 11.4 | 11.5 | 10.9 | 11.7 | 9.1 |
| 12월 중순 | 9.0 | 10.0 | 9.6 | 10.0 | 9.0 | 9.9 | 7.1 |
| 12월 하순 | 8.0 | 9.2 | 8.8 | 9.6 | 8.1 | 8.9 | 6.1 |
| 평 균 | 9.3 | 10.4 | 9.9 | 10.4 | 9.3 | 10.2 | 7.4 |

○ 최저기온

단위 : °C

| 주요도시 |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 창원 | 진주 | 통영 | 거창 |
|--------|------|-----|------|-----|------|-----|------|
| 12월 상순 | -0.6 | 3.3 | 0.5 | 2.1 | -2.5 | 2.7 | -4.3 |
| 12월 중순 | -2.1 | 1.6 | -0.9 | 0.9 | -3.9 | 1.0 | -5.6 |
| 12월 하순 | -3.1 | 0.7 | -1.7 | 0.4 | -4.9 | 0.0 | -6.7 |
| 평 균 | -1.9 | 1.9 | -0.7 | 1.1 | -3.8 | 1.2 | -5.5 |

○ 강수량

단위 :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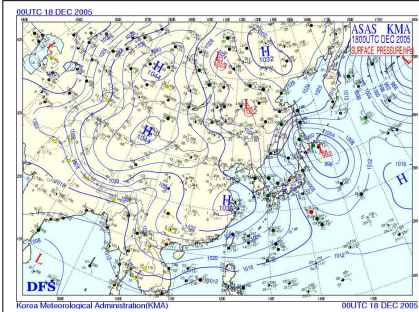
| 주요도시 | 경상남도 | 부산 | 울산 | 창원 | 진주 | 통영 | 거창 |
|--------|------|------|------|------|------|------|------|
| 12월 상순 | 9.0 | 9.4 | 7.4 | 11.7 | 9.0 | 10.1 | 8.7 |
| 12월 중순 | 6.2 | 7.5 | 6.3 | 5.1 | 5.8 | 6.3 | 4.7 |
| 12월 하순 | 6.3 | 7.4 | 10.1 | 4.4 | 5.8 | 6.1 | 5.7 |
| 합 계 | 21.5 | 24.3 | 23.8 | 21.2 | 20.6 | 22.5 | 19.1 |

(평년기간 : 1971 ~ 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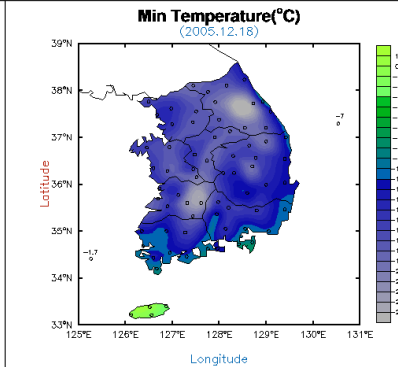
5. 기상재해 사례

□ 한파(2005년 12월 17일 ~ 18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여 한기가 남하하였으며, 대륙고기압이 화중지방에서 이동성고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부산·울산·경남지방은 밤사이 복사냉각을 받아 기온이 전일보다 더 많이 하강함.



2005.12.18. 09:00 지상일기도



2005.12.18. 일 최저기온 분포

| 지명 | 최저기온 (°C) | 지명 | 최저기온 (°C) |
|----|-----------|----|-----------|
| 부산 | -10.6 | 합천 | -14.8 |
| 울산 | -10.4 | 밀양 | -14.5 |
| 창원 | -10.1 | 산청 | -11.1 |
| 통영 | -8.4 | 거제 | -8.1 |
| 진주 | -13.9 | 남해 | -11.6 |
| 거창 | -14.8 | - | - |

2005.12.18. 일 최저기온

○ 부산·울산·경남지방 12월 최저기온 최저 순위

| 지점 | 1위 | | 2위 | | 3위 | | 4위 | | 5위 | |
|----|------------|-------|------------|-------|------------|-------|------------|-------|------------|-------|
|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 창원 | 2005.12.18 | -10.1 | 2005.12.17 | -9.6 | 2006.12.29 | -8.3 | 1985.12.16 | -7.9 | 2008.12.06 | -7.3 |
| 부산 | 1917.12.27 | -12.0 | 1976.12.27 | -11.5 | 2005.12.18 | -10.6 | 1916.12.27 | -10.5 | 2005.12.17 | -10.4 |
| 통영 | 1976.12.27 | -9.3 | 1973.12.24 | -9.2 | 2005.12.18 | -8.4 | 1976.12.26 | -8.0 | 1976.12.29 | -7.9 |
| 진주 | 2005.12.18 | -13.9 | 1983.12.26 | -13.1 | 1984.12.30 | -13.0 | 1983.12.24 | -13.0 | 1983.12.30 | -12.7 |
| 거창 | 2005.12.18 | -14.8 | 1976.12.29 | -14.2 | 1983.12.24 | -14.0 | 1995.12.31 | -13.9 | 1983.12.26 | -13.8 |
| 합천 | 2005.12.18 | -14.8 | 1995.12.26 | -12.9 | 1983.12.26 | -12.8 | 1976.12.29 | -12.7 | 1995.12.27 | -12.5 |
| 밀양 | 2005.12.18 | -14.5 | 1984.12.30 | -12.7 | 1976.12.28 | -12.6 | 1980.12.30 | -12.5 | 1976.12.29 | -12.5 |
| 거제 | 1984.12.30 | -8.9 | 1976.12.27 | -8.9 | 1985.12.18 | -8.6 | 1973.12.25 | -8.2 | 2005.12.18 | -8.1 |

○ 관련 기사

부산 29년만의 강추위 당분간 추운날씨 계속 10.6°C

초겨울 이상추위로 전국이 떨고 있다. 항공기결항, 수도관 동파사고 등 추위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이번 한파는 18일 아침 절정을 이루었다. 부산 경남의 일부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냉동고를 방불케 했다.

부산은 이날 아침 영하 10.6도를 기록했다. 올 겨울 들어 최저기온인 것은 물론, 평년보다 무려 12도나 낮았다. 12월 부산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기는 1976년(12월28일 영하 10도, 12월27일 영하 11.5도) 이래 29년 만이며, 기상관측 이래 세번째 추운 날씨가 기록됐다. 울산은 이날 아침 영하 10.5도, 마산 영하 10.2도, 진주는 영하 13.9도까지 떨어졌으며 거창은 영하 14.8도를 기록했다.

항공기 결항, 수도관 동파 잇따라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 바닷물의 온도는 10도 안팎으로 따뜻함에도 비해 1.5-3km 상공의 대기는 영하 10-20도로 낮아 온도 차이로 형성된 습기가 응결도와 혼란 등 서쪽이 폭설이 내리게 한 반면 건조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와 강릉도와 영남지방은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지는 '서습동건(西濕東乾)'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19일 낮을 기점으로 점차 풀리겠으나 평년보다 3-5도 낮아 여전히 춥겠다"고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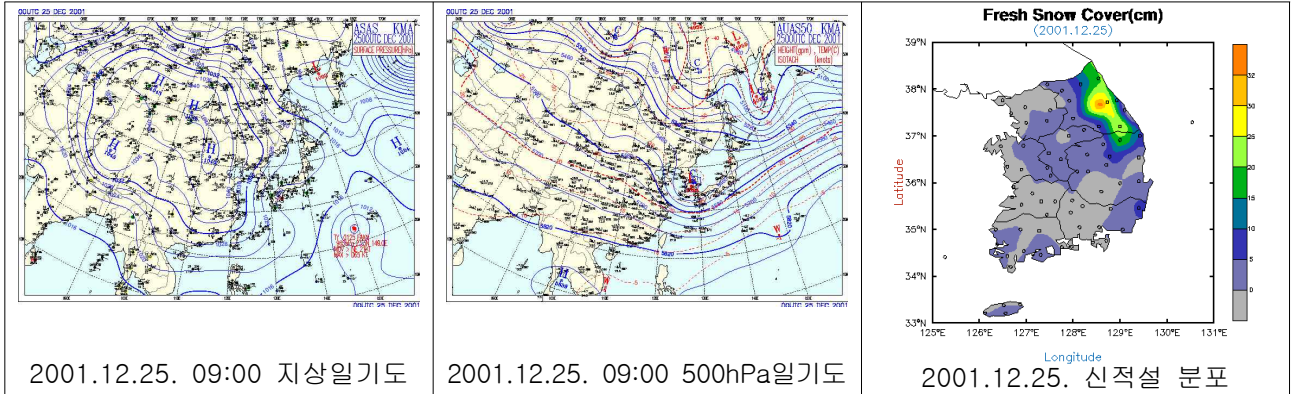
한편 이날 오전 11시 부산-양양 노선 KE8046 등 항공기 2편이 강릉도 원지의 강한 폭풍으로 뜨지 못하고, 기상악화로 다수의 항공편이 연기됐다. 또 지난 17일 밤부터 18일 낮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모두 48건으로 올 겨울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한파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광복통신기자 fute@kookje.co.kr

북동강도 얼었다. 북동강도 얼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18일 서해동풍이 일어붙었다. 이날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6도를 기록했다. 김홍희기자 kind@kookje.co.kr

2005. 12. 18. 국제신문

□ 대설(2001년 12월 25일)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남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은 북고남저의 기압배치를 이루고 한랭다습한 북동풍이 유입되어 눈이 내렸으며, 동해안의 끝단인 부산과 울산지방에도 각각 2.2cm와 5.4cm의 눈이 내려 쌓였음.



○ 부산·울산·경남지방 12월 최심신적설(cm) 최고 순위

| 지점 | 1위 | | 2위 | | 3위 | | 4위 | | 5위 | |
|----|------------|------|------------|------|------------|-----|------------|-----|------------|-----|
|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 울산 | 1959.12.20 | 10.8 | 1959.12.19 | 10.1 | 2001.12.25 | 5.4 | 1952.12.09 | 3.7 | 1969.12.30 | 2.5 |
| 부산 | 1952.12.09 | 17 | 1980.12.09 | 4.4 | 2001.12.25 | 2.2 | 1983.12.31 | 2 | 1980.12.12 | 1.6 |

○ 관련 기사

[크리스마스] 작은 기상이변

한국일보 | 기사입력 2001-12-25 18:19 | 최종수정 2

‘100년만의 눈이에요.’ ‘겨울철 벼락은 기억에 없습니다.’

24일부터 25일 사이 강원 영동에는 20cm 안팎의 폭설이 퍼부는 반면 제주에는 눈 대신 비와 벼락이 쏟아지고, 부산과 울산은 기상관측 이래 처음으로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작은’ 기상이변이 잇따랐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전국 대부분 많은 눈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1-12-25 12:10 | 최종수정 2001-12-25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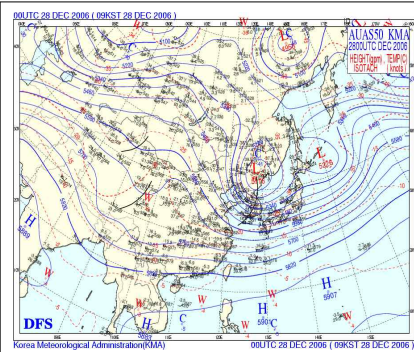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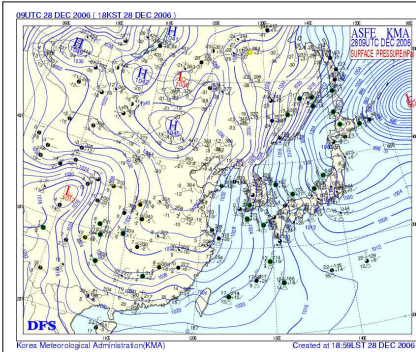
성탄절인 25일 강원 영동지방과 제주 산간, 전남 등 전국 상당수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제주산간과 강원 영동지역에 각각 대설경보를 내렸으며 앞서 강원북동내륙과 경북 동해안, 전남지역에 각각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강원 영동지역의 경우 최고 23cm의 눈이 내려 인제 ~속초간 미시령 통행이 전면통제되고 있다. 경찰은 24일 오후 9시40분부터 미시령의 대형 차량을 진부령 등으로 우회하도록 조치한데 이어 이날 0시20분부터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 강풍(2006년 12월 28일)

한기를 동반한 발달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기압경도가 매우 강한 가운데 추위와 함께 강한 북서풍이 불었음.



| 지명 | 최대순간 풍속(m/s) | 지명 | 최대순간 풍속(m/s) |
|----|--------------|----|--------------|
| 부산 | 17.1 | 합천 | 12.3 |
| 울산 | 14.7 | 밀양 | 14.1 |
| 창원 | 17.9 | 산청 | 24.1 |
| 통영 | 13.1 | 거제 | 13.0 |
| 진주 | 18.8 | 남해 | 15.1 |
| 거창 | 18.0 | - | - |

2006.12.28. 일 최대순간 풍속

○ 부산·울산·경남지방 12월 최대순간풍속(m/s) 최고 순위

| 지점 | 1위 | | 2위 | | 3위 | | 4위 | | 5위 | |
|----|------------|------|------------|------|------------|------|------------|------|------------|------|
|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날짜 | 값 |
| 거창 | 1992.12.13 | 18.9 | 2006.12.28 | 18 | 1996.12.22 | 16.8 | 2005.12.17 | 16.3 | 2008.12.25 | 14.9 |
| 산청 | 2004.12.05 | 24.7 | 2006.12.28 | 24.1 | 2003.12.17 | 21.8 | 1996.12.22 | 21.3 | 2007.12.30 | 21.2 |

○ 관련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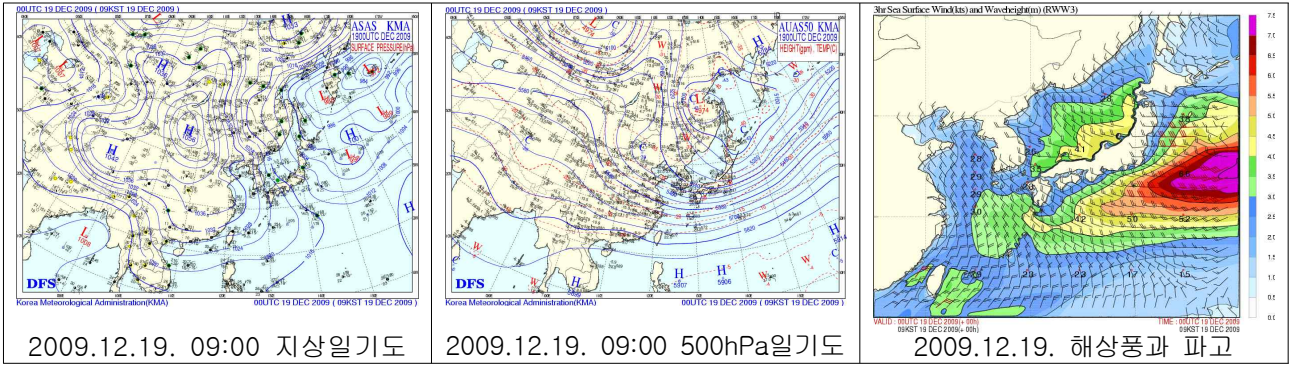


'동장군이 찾아온 새벽 어시장'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28일 새벽 마산어시장의 한 상인이 겨울의 칼바람이 불어오자 두꺼운 옷가지를 챙겨입고 모닥불을 피워놓은 채 조개를 손질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2006.12.28 경남도민일보

□ 풍랑(2009년 12월 19일)

2009년 12월 19일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강한 북서풍이 불었고, 해상에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2~3m의 높은 물결이 일어났음. 이 당시 울산 간절곶 동방 41km해 상에서 조업하던 금수호(29톤)와 상진호(139톤)가 충돌하여 금수호 왼쪽 뒤편이 파손 돼 기관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2009. 12. 19. 파고(m)

| 날짜 | 2009. 12. 19. | | | | | | | | | |
|----------|---------------|-----|-----|-----|-----|-----|-----|-----|-----|-----|
| 시간 | 06시 | 07시 | 08시 | 09시 | 10시 | 11시 | 12시 | 13시 | 14시 | 15시 |
| 포항 부이 | 1.7 | 1.7 | 1.8 | 1.8 | 2.0 | 2.3 | 2.2 | 2.1 | 2.2 | 2.0 |
| 거제도 부이 | 1.1 | 1.0 | 1.2 | 1.1 | 1.2 | 1.2 | 1.3 | 1.1 | 1.0 | 1.0 |
| 호미곶표지관리소 | - | 3.0 | - | 3.0 | - | - | 3.0 | - | - | 3.0 |
| 후포표지관리소 | - | 2.0 | - | 2.0 | - | - | 2.0 | - | - | 2.0 |

○ 풍랑 재해 관련 기사

동해상 어선 충돌 잇따라

주문진 선적간 충돌 사고에선 1척 침몰

2009년 12월 21일 (월)



▲ 지난 19일 오전 10시50분쯤 강릉시 주문진을 소돌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주문진 선적 자망어선 승강호(6.34t)와 수연호(9.77t)가 충돌했다. 사진제공=속초해양경찰서

강원도 선적 어선의 해상 충돌 사고가 잇따라 1척이 침몰했다.

20일 오전 4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동방 41km 해상에서 조업하던 거진선적의 채낀기 어선 금수호(29t)와 경상남도 통영선적의 대형 트롤어선 상진호(139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금수호 선원 5명과 상진호 선원 13명 중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금수호의 왼쪽 뒤편이 파손돼 기관실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19일 오전 10시50분쯤 강릉시 주문진을 소돌항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주문진선적 자망어선 승강호(6.34t)와 수연호(9.77t)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강호가 오른쪽 중앙부분이 파손돼 수연호에 의해 메인되던 중 오전 11시40분쯤 바닷물이 차올라 주문진항 북방파제 앞 300m 해상에서 결국 침몰했다.

승강호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은 수연호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속초 해경은 두 선박이 조업 중 서로 피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속초/김창삼 박성은

2009. 12. 21. 강원도민일보